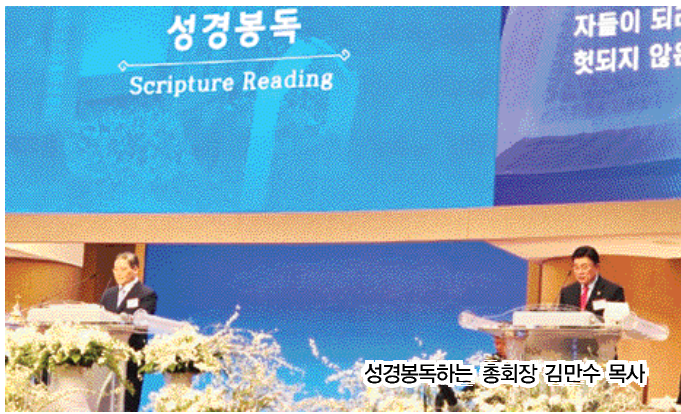


140주년 맞은 한국교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대회



성경봉독하는 총회장 김만수 목사

한국교회총연합(한국총)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대회’가 4월 23일(수)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기념대회는 교단 대표들이 오전 9시에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방면으로 시작됐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은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헌신한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가족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오늘날까지도 한국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을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 장소다.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함께 다짐했다. 소강석 목사기념대회 상임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김종혁 목사

(한국총 대표회장)의 기념사, 이상규 목사(예장개혁신총회장)의 기도, 본교단 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성경봉독, 이영훈 목사(명예회장, 기하성 대표총회장)의 설교, 여의도순복음교회 베테스다 찬양대의 찬양, 박병선 목사(공동대표회장, 예장합신 총회장)의 비전선언, 김정석 감독(기갑 감독회장)의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우웨이 목사, 일본 복음동맹 미즈구치 이사오 이사장의 축전이 이어졌다. 축도는 김영걸 목사(공동대표회장, 예장통합총회장)가 맡았다. 특히 기념예배에서는 창작 칸타타 <빛의 연대기>가 공연됐다. 140년 전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빛이 시대의 어둠을 어떻게 뚫고 이어져 왔는지를 9곡으로 나뉜 조명했다. 대본과 작사는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대회 상임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맡았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전우수 장로 추대



한국장로회총연합회(이하 한장총) 제45회 정기총회가 4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 신임 대표회장에 전우수 장로(예장고신)를 선출했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전우수 장로는 취임사에서 “17개 회원교단의 일치와 연합에 힘쓰고 회생과 섬김, 봉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한장총을 이끈 직전회장 노성배 장로는 이임사에서 “전우수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한장총이 더 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사업·감사·결산보고 등이 차례로 진행된 후 임원선출에 들어간 전횡위원회가 추천한 전우수 신임회장과 공동회장, 총무, 서기, 회계 등 신 임원을 인준했다.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제70차 웨슬리언국내 선교대회 개최

“웨슬리의 신앙 본받아 경건하고 성결한 삶 살아가”



제70차 웨슬리언국내선교대회가 29일 후서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양기성 목사(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는 ‘개인구원을 넘어 사회구원으로’ (눅 4:18-19, 약 2:14-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양 목사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런 현대적 사회복음 운동은 웨슬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신앙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신앙과 삶은 하나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사랑으로 실천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다.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개신교의 3대 스승 중 한 명이며 종교개혁의 완성자인, 성령신학의 주창자 존 웨슬리의 신앙을 본받아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가정 파괴하는 퀴어축제 멈춰야”

거룩한방파제, 국민대회 6월 14일 개최



동성애 퀴어축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2025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오는 6월 14일 서울 시청과 송례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20만 명이 운집했던 통합국민대회는 올해 30만 명 규모로 확장돼, 서울의 중심부 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외친다. 앞서 2025 서울 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에서 15만 명 이상

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대회장 오정호 목사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4일 열리는 국민대회의 의미와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현직 목회자, 학자, 법조인들이 함께해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헌법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호소

에 나섰다. 공동준비위원장 김원형 교수(동남연운영위원장)는 “퀴어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동성애를 미화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당화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나라의 다음세대가 동성애의 실상과 질병, 성적 혼란의 폐해에 부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혐오’로 낙인찍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성애 독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오는 6월 14일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행사는 △1부 특별기도회 △2부 개회식 △3부 국민대회 △4부 퍼레이드 △5부 문화공연으로 진행된다.

초대합니다

2018년의 어느 날
20대의 두 남녀가 서로의 길에 화음이 되고
같은 박자로 발을 맞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걸음과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파스한 봄을 맞이합니다.

가정이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약속의 자리에
고맙고 소중한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저희의 소중한 증인(Magtus)이 되어주세요.

이정길 · 방은실 의 아들 이요한
박판희 · 박윤희 의 딸 박혜원

일시: 2025. 5. 24.(토) PM 3시 30분
장소: MJ컨벤션 5층 그랜드볼룸 예식홀

성결신문사 사장 이 · 취임 감사예배



이임 / 제11대 사장
강병익 장로
문래동교회

일시 2025. 5. 11(일) 오후 2시

장소 참좋은교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11
(부천시청역 4번 출구)
☎ 032-326-3491



취임 / 제12대 사장
김종현 장로
참좋은교회

성결신문사 03026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1가길 11(총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 홈페이지 www.sknews.or g